

안전불감증 '위험한 물놀이'

여름캠프·유원지 등 익사 사고 급증...광주·전남 올 29명 숨져

찌는듯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안전사고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놀이 사고와 안전사고의 원인은 안전장비 미착용 등 작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날 현재까지 물에 빠져 숨진 경우는 광주 4명, 전남 2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또한 광주 1명, 전남 33명이었다. 광주지역의 2006년, 2007년 익사자는 각 1명씩이었다.

전남지역 물놀이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6년 한해동안 전남지역 익사자는 47명(부상 64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사망자가 54명(부상 7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25명이 숨졌다.

대부분의 익사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 때문으로 분석됐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단순히 고무보트와 튜브 등 놀이장비만 믿고 물놀이를 즐기다 갑자기 타던 파도나 빠른 물살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또 물놀이 사고는 바다·계곡·유원지 뿐 아니라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심지어 하계 연수프로그램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20분께 장성군 북이면 모 저수지에서 병영체험훈련에 참가했던 중학생 김모(14)군 등 2명이 물에 빠져 김군이 숨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께 완도군 금일읍 모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던 임모(27)씨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지만, 해경에 의해 구조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물에 뛰어든다 사고가 났었다. 이밖에도 지난달 26일 화순군 이양면 용두리 유원지에서 수영을 하던 이모(13)군이 숨졌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지난달 31일 발령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07명에 달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구조구급팀 관계자는 "수영실력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 하나 없이 물에 뛰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가족단위로 피서를 즐길 때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시설이

나 요원들이 없는 곳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피서길 승합차 전복 중·고생 13명 부상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B해수욕장 입구에서 김모(여·27)씨가 몰던 78보41XX호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안에 타고 있던 중·고교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남군 H교회 신도들이 청소년수련회를 위해 해수욕장으로 가던 중 입구 근처 커브길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안전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3만4천여명의 피서객이 물러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무안 골프장 분쟁' 항소심 주민 패소

광주고법 "피해 증거 없어 설치 인가 처분 적법"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중시해 골프장 설치인가를 취소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관사 방극성)는 지난달 31일 배모씨 등 무안군 주민 62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골프장 인가처분은 적법하다"며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안군은 G사에 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하는 데 있어 관련법 규정을 지켰고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G사의 이익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이익비교'와 관련, 재판부는 "주민들이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진동·폐기물·운영 과정의 수질 오염·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를 의심할 수 있지만 G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주민들은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이익비교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중시한 1심 판결과 달리 이 골프장 운영으로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D수첩 정정보도해야" 법원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공무명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MBC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정하는 구체적인 정정 및 반론보도 문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판결 수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형뉴스

경찰, 절도범 검거 허위 보고 물의

"CCTV 설치 잡았다" 알고보니 피해자가 설치

광주북부경찰이 절도범 검거 과정을 허위로 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6월 1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A(여·30)씨의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 장모(34)씨를 경찰이 설치한 CCTV를 통해 검거했다고 광주경찰청에 보고했다.

북부경찰 형사과 C경사가 작성한 절도범 검거 업무보고에는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결과 용의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A씨의 동의를 얻어 주거지 옆에 CCTV를 설치했다'고 적혀있다. 또 '지난달 25일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잠복중 범인을 붙잡았다'는 내용도 기재

재돼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CCTV는 경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절도피해를 상습적으로 당한 피해자 A씨가 37만원을 들여 설치했고, 범인 검거경위도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설치 당일인 지난달 26일 '낯선 남자가 집에 나왔다'는 주민의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있었다"며 "주민의 말을 듣고 용의자 집 근처에 가서 담당 경찰에게 전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경사는 "광주지방경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실수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



폐기물 4천t 무단 방치

운반업체 대표 조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폐기물 수천 t을 수집해 공터에 무단으로 적치해 놓은 폐기물을 운반업체 대표 정모(45)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1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6곳으로부터 모은 폐기물 4천여t을 광주시 광산구 지족동 자신의 사업장 내 공터에 쌓아두고 이를 처리업체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폐기물 무단 적치로 관할 지자체가 2006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정씨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도록 한 경남 사천의 D업체 등 6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경영난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로 폐기물을 운반할 비용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무단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업체로 보내는 데 5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우정 배신한 친구, 신용카드 훔쳐 써

○사채업자를 피해 고교 동창생 집에서 숨어 지내던 30대가 친구의 신용카드 등을 몰래 훔쳐 사용하다 경찰에 걸렸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K(31)씨는 지난 3월부터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살고 있는 친구 Y(31)씨의 집에서 지내던 중 Y씨의 신용카드 등을 몰래 훔쳐 사용하다 경찰에 걸렸다.

○K씨는 1억여원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를 피해 친구 Y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Y씨가 개설해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덴티티를 결제하고, 신용카드도 몰래 훔쳐 사용하는 등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뒤편 짓을 저질렀다고.

○친구 Y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다녔던 우정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소문을 들은 경찰에 의해 K씨는 결국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 /이종형기자 golee@

태풍피해 부풀려 보상금 '꿀꺽'

양식어민들 잇따라 적발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해 보상금을 노리고 치어 재고량이나 구입경위를 속인 양식어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양식장 내 치어 재고량을 속여 태풍피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0)씨를 불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은 치어 재고량을 허위로 부풀린 보고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공무원 주도(33)씨도 불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주씨에게 부탁해 여수시 들산읍에 있

는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감성돔 1만5천마리를 양식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지난해 9월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보상금 5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불법으로 잡은 자연산 치어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지자체에 신고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강모(48)씨 등 다른 양식어민 3명을 불잡아 조사중이다.

강씨 등은 지난 5월 하순께 육산종묘 생산업체에 부탁해 놓은 치어 4만마리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박영규기자 ypark@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국제약품, 코멘자임, 수퍼비타민,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 생리,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코멘자임

아연의 보충
*아연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02)1771-0211